

# REPORT

제 목: 연 쇠 살 인 ○



과 목: 특 수 범 죄 론 ○

학 과: 경 찰 행 정 학 과 ○

조 원: 20050705 하성열, 20080751 김지혜 ○

20080777 김소정, 20080835 윤은아 ○

20080854 김하얀, 20084551 조용환 ○

담 당 교 수: 주 용 결 교수님 ○

# ◎ 차 례 ◎

I. 머 리 말 .....	3
II. 연쇄살인의 의의	
1. 개념 및 특징	
가. 개념 .....	3
나. 특징 .....	
2. 연쇄살인의 동기 .....	4
3. 일반범죄와의 차이점 .....	5
4. 연쇄살인의 통계적 수치 .....	5
5. 연쇄살인범의 종류 .....	6
III. 연쇄살인 발생 요인	
1. 범죄생물학적 요인	
가. 원인적 분류 .....	6
(1). 생화학적 조건과 범죄	
(2). 신경생리학적 조건과 범죄	
(3). 유전과 범죄	
나. 학자적 분류 .....	12
(1). 신체적 원인연구	
(2). 범죄성과 유전적 결함	
(3). 범죄인 가계 연구	
(4). 쌍둥이 연구	
(5). 양자연구	
(6). 성염색체 연구	
2. 범죄심리학적 원인	
가. 심리학적 요인 종류 .....	17
나. 사이코패스 .....	20
다. 연쇄살인 심리 7단계 .....	21
3. 범죄사회학적 원인	
가. 가정 .....	22
(1). 가정결함의 형태	
(2). 가정의 기능적 결함요인	
나. 학교교육 .....	25
(1). 일반적 환경으로서의 학교교육	
(2). 개인 환경으로서의 학교교육	
(3). 학생범죄	
다. 직업 .....	25
(1). 직업별 범죄성	
(2). 실업과 범죄	
IV. 대 책 .....	26
V. 세계와 국내의 연쇄살인범	
1. 세계의 10대 연쇄살인범 .....	29
2. 한국의 연쇄살인범 계보 .....	31
VI. 결 론 .....	34
VII. 참고문헌&자료 .....	35

# 연쇄살인(Serial Murders)

## I. 머리말

‘유영철’, ‘강호순’ 이 이름은 최근 우리 사회를 경악과 공포에 떨게 했던 연쇄살인자의 이름이다. 이러한 연쇄살인은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원여성연쇄납치살인사건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발생되어져 최근까지 일어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4년 3월 사형된 ‘살인광’ 존 웨인 게이지 2세가 연쇄살인범의 대명사로 통한다. 그는 1972~1978년까지 시카고에서 33명의 젊은이들을 고문·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집에 파묻었다. 러시아에서는 50대 교사가 1978년부터 12년간 어린이 35명 등 52명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994년 사형됐다. 안드레이 치카틸로라는 이름의 이 살인범은 희생자의 심장 등 신체 일부를 먹는 엽기적 행위를 해 ‘로스토프의 백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프랑스에서는 2009년 초 60대 남성이 성폭행에 대한 징역형을 면한 뒤 1987년~2001년 새 9명의 소녀를 연쇄 살해했다고 자백, 충격을 줬다.

연쇄살인은 이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충격과 공포를 퍼트리고 있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세월이 흐르면서 연쇄살인범들은 방화, 칼로 찌르기 등의 살인기법에서 망치로 사람을 죽이는 등의 잔인한 살인기법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범죄 전문가들은 ‘연쇄살인은 상당기간 범인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일으켜 테러에 못지않은 영향을 준다.’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막대한 파급력과 혼란을 초래하는 연쇄살인의 발생요인은 무엇일까?? 대책은 없는 걸까?

테러의 위험한 파급효과와 맞먹는 연쇄살인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쇄살인의 개념, 특징, 동기 등을 파악해보고 발생요인을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으로 나누어 분석해본다. 또한 세계 및 우리나라 범죄역사에 어떤 연쇄살인범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 II. 연쇄살인의 의의

### 1. 개념 및 특징

#### 가. 개념

연쇄살인범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죄자를 의미한다. 흔히 현대 사회의 타락한 문화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나, 중세 이전부터 연쇄 살인은 존재해 왔다. 연쇄살인은 범인이 잡히기 전까지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존재이다.

연쇄 살인이란 단어는, 심리 전담반이라고 불린 'FBI 엘리트 행동과학연구소'의 창립 인원이었던 전 FBI 요원 로버트 레슬러(Robert K. Ressler)에 의해 처음 사용된 것으로 그는 “한 명의 범인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3명 이상을 살해하는 경우”를 지칭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 외 범죄심리학자인 스티븐 에거(Steven Egger)는 “강박감이나 만족감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이 여러 명의 낯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라고 하고, 조엘 노리스(Joel Norris)는 “한 개인이 최소한 두 명의 희생자를 한 달이나 그 이상의 기간을 두고 살해하는 경우”로 정의했으며, 홈즈(R.&S. Holmes)는 “최소한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최소한 3명을 살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나. 특 징

병든 심리 상태, 반사회적 성격, 끔찍할 정도로 궤도를 벗어난 병적인 욕구 등 연쇄 살인마들은 모두 다 이러한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1984년에 FBI의 레슬러와 그의 동료들이 국제 과학 수사 협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연쇄 살인마들 중 섹스에 그 동기를 두고 있는 연쇄 살인마들에서 다음과 특징이 유독 두드러진다고 보고되어 있다.

연쇄살인범의 특징	
· 90% 이상이 백인 남자다	
· 영리한 편이고 IQ도 중 · 상이다 (하지만 머리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성적이 형편없고 직장 생활도 잘 하지 못하며, 대개의 경우 결국엔 단순 노동적으로 밀려나고 만다)	
· 불건전한 가정 출신이다 (대개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독선적인 어머니 밑에서 성장한다)	
· 범죄나 정신병, 알콜 중독이 흔한 집안 출신이다	
· 아버지, 어머니 모두를 증옌다	
· 어렸을 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성적으로 폭행을 당한 경력이 있다 (성폭행의 경우, 낯선 사람에게 당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가족이거나 아는 사람들에게 당한다. 여기서 폭행이란 육체적인 가학행위 뿐 아니라 폭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를 꼬드겨서 성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말하며, 심지어는 아이가 좋아했다고 하더라도 이것 역시 성폭행으로 간주한다)	
· 어렸을 때 정신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	
· 여러 번 자살을 기도한 경험이 있다	
· 어렸을 때부터 훔쳐보거나 도착증, 가학/ 피학적 성향이 강한 포르노를 즐겨보았다	

## 2. 연쇄살인의 동기

가학적인 살인범들이 정상적인 사회화 과정과 완전히 단절되는 경험을 하며 연쇄살인을 저지르게 된다고 한다. 그들은 어린 시절에 마땅히 받아들여야 했을 도덕, 감정, 양심을 전혀 습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정신의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생겨나는 어둡고 야만적인 충동을 통제하지 못한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야만적이고 인간 이하인 존재가 불쑥 튀어나와 일시적으로 그들을 점유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연쇄살인범들은 연쇄살인을 저지르게 된다.

또한 연쇄살인범들의 살인 이면에는 과거에 극심한 뇌 손상이나 가정에서 학대를 받으며 자라난 상처가 도사리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들이 연쇄살인범의 정서 발달에 지장을 주어 자신이 완전히 쓸모없고 사랑받을 가치도 없다고 느끼게 되며, 장차 사악한 인성을 지니게 되어 연쇄살인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연쇄살인범들은 어린 나이 때부터 비뚤어진 환상을 품기 시작하는데, 이후 그들은 극단적인 변태적 환상에 빠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병적인 환상을 현실로 옮겨놓게 된다. 그들의 타락한 환상은 실제 세계로 분출되고, 결국 환상과 사실의 경계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연쇄살인범들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이나 유명세를 타고 싶어서, 혹은 다른 살인범을 단순 모방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 3. 일반범죄와의 차이점

연쇄 살인마는 비단 범행 (살인) 자체에만 중독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살인행위는 곧 절차를 중시하는 일종의 종교의식으로 자리 잡고, 나아가 자신의 삶 그 자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즉, 살인행위는 곧 자기 자신의 생존을 지탱해 주는 중심축이 되고, 면밀한 사전조사와 준비, 납치와 고문, 살해와 시체 유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들은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종교 의식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끊임없이 반복된다.

바로 이러한 종교 의식적 행위가 연쇄 살인마를 규정하는 근거가 되고, 연쇄 살인마가 무작정 사람만 죽이는 여타 살인범과 구분되는 중요한 특징이다. 이들은 살인을 하는 바로 그 순간 극히 폭발적인 성적 오르가즘을 느낀다고 한다.

또한 대부분의 강력범죄에는 '범행동기'가 있고, 이는 강력사건의 수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화됨에 따라 이른바 '무동기(이상동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 유영철과 같은 사이코패스의 '연쇄살인'을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무동기 범죄'의 해결을 위해 도입된 수사기법이 '프로파일링(Profiling: 범죄심리분석)'이다. 미국연방수사국(FBI)이 1978년에 처음으로 도입한 이 기법은 외국에서는 이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여러 편 제작될 만큼 널리 알려져 있지만 국내에서는 최근에 '김길태 사건'에 프로파일러가 활약, 범인 검거에 단서를 제공하여 국민들에게 알려 졌을 뿐 아직 생소한 분야 이다.

### 4. 연쇄 살인의 통계적 수치

Question	Answer
1) 연쇄살인범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는?	→ 바로 <b>미국</b> 이다. 전 세계 연쇄살인마의 약 76%가 미국인으로써 즉, 희생자 역시 미국인이 가장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17%는 유럽이 차지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쇄 살인 중에 28%가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독일이 27%, 프랑스가 13%이다.
2) 연쇄 살인범의 희생자는?	→ 살인은 신체적 접촉이 많고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희생자를 자기보다 약한 사람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연쇄 살인범의 90%가 남자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이것도 곧 답이 나온다. 희생자의 약 65%가 <b>여성</b> 이다. 그중 백인 여성일 확률은 89%이다. 연쇄 살인범들은 거의 동종의 인종을 죽이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 통계를 보며 알 수 있는 것은 살인범이 자기가 사는 주위에서 희생자를 고른다는 사실이다.
3) 연쇄 살인범의 연령은?	→ 절반에 가까운 44%가 <b>20대에 살인을 시작</b> 한다. 그리고 10대부터가 26%, 30대부터는 24%로써 전체 연쇄 살인범 중 79% 이상이 10대와 20대인 것은 위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연쇄 살인을 위해서는 상대를 제압하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0대부터 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비율이 상당하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4) 연쇄 살인범에게 가장 많이 희생되는 직업은?	→ 익명성이 보장되는 <b>타인</b> 지, 아니면 스스로 거리로 나선 <b>타인</b> 지 <b>창녀</b> 의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연쇄 살인범들이 직업을 보고 희생자를 고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직업이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 5. 연쇄살인의 종류

망 상 형	연쇄살인으로 정신이상에 의한 범죄행위라 생각하고 미친 것으로 취급하거나 ‘신의 계시를 받았다’ 고 주장하는 것처럼 환청, 환각에 이끌려 살인을 저지른 경우이다.
권 력 형	연쇄살인으로 힘의 과시를 위한 살인과 범죄자가 상대방을 제압해 만족감을 느끼려하며 주요 범행대상은 여성과 노인을 상대로 저지르는 경우이다.
사명감형	연쇄살인으로 사회악을 제거하기 위해 살인을 정당화하거나 부를 독점한 일부 부유층이나 성적으로 타락한 여성들의 살인이 대부분이다.
쾌 락 형	연쇄살인으로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뒤 수사과정까지 지켜보며 희열을 맛보거나 범인에게 살인은 자신의 심리적 생존을 위한 행사로 그 자체를 즐긴다. 그리고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연쇄살인자들은 정욕살인자였다

## Ⅲ.연쇄살인 발생 요인

### 1. 범죄생물학적 요인

#### 가. 원인적 분류

범죄자가 어떠한 이유에서 범죄를 저지르는지에 관한 연구는 18세기 중반부터 시작하여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롬 보르조를 시작으로 한 범죄생물학의 연구는 지금도 지속되어 어떠한 생물학적인 원인이 범죄를 불러오게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학문적 연구가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범죄생물학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인간의 생물학적 요소에서 찾는 것으로 극히 과학적인 논리와 과정을 중요시 한다.

#### (1). 생화학적 조건과 범죄

생화학적인 여러 인자와 작용들이 범죄행위나 비행행위와 같은 반사회적 행위를 유발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으로 범죄와 생화학적 작용, 조건, 반응의 관련성에 대해서 연구한다.

##### － 영양부족과 범죄의 관련성

범죄생물학자들이 영양과 관련해서 오래 전부터 주장한 것은 최소한의 미네랄과 비타민을 섭취하지 못할 경우 뇌의 정상적인 기능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영양부족이나 결핍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타민 부족과 비타민 의존증세이다.

정상적으로 필요한 양 이하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당연히 비타민이 부족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몸의 각 부분들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두뇌의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

래하게 되어 보편적으로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저하, 정서불안, 공포감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

문제는 이 정도만으로 끝날 경우라면 괜찮겠지만 심할 경우에는 극도의 불안감이나 정서불안, 공격적 성향의 강화 등으로 인해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비타민B가 부족할 경우에 심각한 뇌손상이나 기능장애, 기능저하 등을 일으킨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영양소의 작용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나트륨, 칼륨, 칼슘, 아미노산, 모노아민, 펩티드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우울증, 광증, 인지작용상의 장애, 기억상실, 비정상적 성욕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모든 미네랄과 비타민을 대상으로 범죄와의 상호관련성에 대해 연구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타민 B와 C가 부족하거나 이에 대한 신체적 의존성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두뇌작용에 이상을 일으키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범죄나 비행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를 유발하게 된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다.

아동기와 유아기에 있어서 대부분의 영양소가 두뇌발달에 기여하지만 특히 비타민 B3과 B6은 장래의 반사회성과 공격성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 당과 범죄

당분은 탄수화물이 소화된 결과로 나타나는 생산물이기 때문에 범죄학에서는 실질적으로 두 가지를 동일시하여 설명하고 있다. 두뇌의 활동에 가장 직접적인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는 것은 당의 일종인 포도당 이다.

포도당이 부족할 경우 두뇌의 활동과 작용은 현격하게 둔화되기 시작하며 극도로 당이 부족하게 되면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비정상적인 두뇌활동이 빚어진다. 이 경우 범죄와 같은 극단적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와의 관련성을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당과 탄수화물의 공급량과 그 내용이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로 Stephen Schoenthaler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276명의 소년범을 상대로 당의 공급과 폭력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각 소년범에 대해서 음식물의 공급을 바꾸어 보고 이에 따라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과정을 관찰해 봄으로써 어느 정도까지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당의 섭취를 현저하게 감소시킴으로써 교정시설 내에서 처벌수준에 이를 수 있는 폭력적 행동들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의 연구는 연구과정에 있어서 인종적, 연령적, 문화적 환경을 전적으로 고려했고 각각의 소년범들이 가지는 상황적,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결과이기 때문에 신뢰성을 더 크게 가진다.

당분과 범죄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을 어느 정도는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두뇌의 작용과 당분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비정상적인 당분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그 파장으로 범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까지는 확인되었다.

성공적인 연구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상당수의 범죄학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달고, 안 달고 하는 것과 천연감미료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아동들의 폭력성과 거의 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었던 사실은 당의 공급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아동의 폭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당의 공급을 얼마만큼 하는 것이 범죄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별다른 해답이 없지만 단지 과도한 당분의 공급은 인간의 폭력성과 신경질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당을 공급하지 않는 것이 폭력범죄나 우발적인 범죄행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당의 공급과 범죄의 상호관련성에 있어서 폭력적이고 우발적인 부분에 국한하여 효과가 나타날 뿐이며 전체적인 범죄현상에 대해서 당과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 － 저혈당증과 범죄

뇌에 공급되는 혈당이 지속적으로 부족하게 되면 일종의 증세로서 전환되어 저혈당증이 되는 것이다. 저혈당증은 주로 뇌의 작용을 저하시키거나 과도하게 작용하도록 함으로써 비정상적인 행동을 유도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우울증이나 과도한 폭력성의 표현, 심한 두통, 머릿속의 혼란 등이 나타난다. 저혈당증에 대한 연구를 보면 이로 인한 반사회성의 표현이나 폭력성의 과도한 표출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수형시설에서 형을 살고 있는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저혈당증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는데 조사결과 심각한 저혈당 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재소자들이 더 폭력적이고 과격하며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혈당증으로 인해 충동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 － 호르몬의 영향과 범죄

많은 범죄생물학자들은 호르몬과 범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왔다. 특히 성호르몬의 역할과 범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범죄문제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학자들은 주로 엔드로젠과 같은 남성호르몬이 남성들의 폭력성을 유발하는 원인이며 이것이 정상적인 수치보다 높게 분비될 경우 성범죄나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호르몬의 변화는 본인의 이성적, 합리적 사고와 관계없이 인체에 많은 변화를 준다. 다양한 호르몬의 성격과 그 작용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정상적인 사고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들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호르몬으로서 테스토스테론이 있다. 이 호르몬은 남성호르몬으로서 2차적 성징을 표현한다. 과도한 폭력성이나 잔인함으로 인해 소년수용시설에 들어온 범죄소년에 대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춰주는 실험을 한 경우에도 해당 소년의 폭력성과 잔인함이 크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엔드로젠이 폭력성과 관련되는 것은 직접적으로 엔드로젠에 의해 뇌의 기능이 장애를 받기 때문이다. 뇌에는 상대방이나 타인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거나 미안한 감정 또는 동정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효소가 있다. 그런데 엔드로젠은 이 효소를 파괴함으로써 뇌의 작용이 잔인하고 포악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남성호르몬과 관련된 폭력성의 문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가. 과도한 남성호르몬의 작용은 주변상황에 대한 인지능력을 떨어뜨리고 스스로 판단을 내린 것이 옳은 것으로 여겨지도록 하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범죄행위를 저지를 경우 주변에 의한 제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감정이나 유혹에 따라서 그대로 범죄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나. 남성호르몬의 작용이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설 경우 대뇌의 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변의 자극이나 작용에 대해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곧바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범죄행위로 연결될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을 의미한다.

다. 대뇌와 뇌 반구에 작용하는 남성호르몬은 이성적인 측면보다는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측면을 더 많이 자극한다. 따라서 남성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될 경우 뇌에서는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충동적인 결정을 주로 내리게 되어 있다. 이는 외부로 표현되는 신체행동과 언어에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대인관계에 있어서만은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남성호르몬의 과도한 분비와 생산은 결과적으로 뇌와 육체적인 작용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훨씬 높여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 － 생리전증후군과 범죄

남성 이외에 여성호르몬과 범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다각적인 방향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여성의 생리를 기준으로 전후에 걸친 폭력성의 증대와 히스테리적 현상의 출현, 도벽과 같은 비정상적인 심리상황의 발생, 반사회적 기질의 표현 등에 대해서 연구가 끊임 없이 진행되고 있다. 여성들의 생리에 나타내는 비정상적인 심리적 상태와 행동양상을 생리전증후군으로 부르고 있다.

Katharina Dalton은 영국 여성들에게서 생리기간 중에 훨씬 더 높은 자살율이 나타나며 이 외에도 공격적인 성향이 심하게 나타나거나 반사회적 성향이 나타나는 것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다.

Julie Horney은 여성의 생리가 범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주장이며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옳은 관점이라고 역설하였다. 즉, 여성들이 생리기간 중에 겪게 되는 신체적 스트레스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간접적으로 범죄로 표현되어지는 것일 뿐 직접적으로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Dianna Fishbein은 여성의 폭력성과 범죄성은 생리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교정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여성 가운데 상당수가 생리직전에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렇지 않은 여성범죄자도 생리주기에 의한 호르몬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범죄에 대한 욕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충동적으로 절도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위나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성들의 생리는 분명히 여성들의 범죄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폭력성과의 관련성은 존재한다.

### － 알레르기과 범죄

알레르기는 일반적으로 외부적인 자극이나 물질에 대해서 신체가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알레르기는 뇌의 팽창을 과도하게 유도하여 소위 뇌가 붓는 현상을 초래한다. 그 결과로 신경계의 장애는 물론이고 사고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것이 우선시 되지 않게 유도한다. 그리고 행동과 감정의 일치를 방해함으로써 비정상적 행동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입힌다. 알레르기로 인한 부작용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알레르기로 인해 우울증이나 과도한 흥분, 공격성, 폭력적인 행동 등이 나타난다는 결과가 나왔다.

### － 환경오염물질과 범죄

중금속이나 유독가스 같은 환경오염물질들이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주 심한 오염물질일 경우에는 인간을 질병 또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덜한 경우에도 역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비정상적인 양상을 나타내도록 영향을 미친다.

직접적으로 물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빛도 정서적인 불안정과 발작현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텔레비전 화면에 나오는 빛을 포함하여 각종 조명에서 발생하는 광원에 의해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이 뇌파의 이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음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에 이 또한 범죄나 비행의 원인으로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환경오염물질과 인간의 정신건강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이 납에 관한 것들이다. 납은 대표적인 중금속물질로서 인체기관 가운데에서도 특히 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납이 나이가 어린 학생이나 아동들의 신체에 투입되면 바로 뇌로 들어가 뇌의 작용에 이상을 유발한다. 특히 폭력성이나 반사회적 성향을 키우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침으로서 그에 따르는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 (2). 신경생리학적 조건과 범죄

뇌의 작용과 관련된 연구가 많은 것은 뇌가 직접적으로 인간의 신체를 통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며 이를 신경생리학이라고 부르며 이를 기반으로 한 범죄학연구를 신경생리학적 범죄학이라고 부르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의료적인 관점과 범죄학적인 관점을 결합한 실증적인 연구가 무수히 이루어졌으며 뇌손상이나 신경계의 이상으로 인한 두뇌활동 장애 등이 직접적으로 범죄성의 증대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 신경과적 손상과 범죄

신경생리학적인 관점에서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하지만 그 중 EEG라 불리는 뇌전도 검사가 있다. 이는 뇌의 작용과 기능이 정상적인가를 확인하는데 가장 중요한 척도로 활용되어진다.

EEG와 관련된 여러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비정상적인 EEG수치를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능력과 억제능력이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타인에 대해서 적대적인 경향이 짙으며 자신에게 방해가 되거나 경쟁적인 입장을 가지는 사람에 대해서 대단히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 심한 경우 상대방을 완전히 파괴시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까지 몰아붙이는 경우까지도 있다. EEG는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도 범죄성이나 반사회성을 확실하게 확인시켜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뇌파의 형태도 범죄성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만약 파동이 규칙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나타난다면 두뇌는 비정상적인 작용을 한다는 의미이다. 성인의 뇌파에서 불규칙적이고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파동이 발견될 경우 그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지나치게 비판적이며 기질적으로 화를 잘 내고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 － 경미한 수준의 뇌기능 장애와 범죄

뇌기능장애는 주로 외형적인 비정상적 행위의 문제와 직결된다. 뇌기능장애를 일으키게 되면 정상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경미한 수준의 뇌기능장애는 주로 뇌의 화학적 작용과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떨어뜨린다. 그 유형으로 집중력의 감소, 시각인지능력의 장애, 독서장애, 잦은 짜증, 과도한 공격성의 표현 등이 있다. 경미한 수준의 뇌기능장애가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는 바로 분을 참지 못하는 것이다. 뇌기능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지극히 평범하고 온순하게 생활하다가도 일단 발동하면 분노의 폭발수준이 정상인들에게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나타난다.

### －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와 범죄

일반적으로 주의산만과 불필요한 과잉행동은 전체 아동 가운데 3%정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남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남아들의 증상으로 학업부진이나 급우들과의 부적응, 유급, 교사에 의한 특수교육 등의 문제가 있다. Terrie Moffitt과 Phil Silvia는 정상적인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두뇌활동의 장애와 이로 인한 학습장애, 주의산만, 비정상적 과잉행동 등은 잠재적인 범죄자를 양산하는데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 기타 뇌기능장애와 범죄

다른 기타 뇌기능장애는 범죄 가운데에서도 폭력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의 뇌는 크게 4개의 부분으로 나뉘며 그 중 합법적인 행동을 선호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피하도록 하는 데에는 주로 대뇌의 앞부분이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뇌의 앞부분에 기능장애가 발생한다거나 손상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범죄유발 가능성이 크다.

의학적으로 뇌손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뇌손상이 직접적인 범죄유발보다는 잠재적인 폭력성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 뇌종양, 뇌질환과 범죄

뇌의 질병이나 부상에 의한 손상, 종양 등도 역시 범죄성과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뇌에 질환이 생기거나 부상에 의한 손상, 종양으로 인한 기능장애 등이 오면 일단 성격의 급격한 변화나 환각증상, 망상 등을 겪게 된다. 뇌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상이 더욱 심각해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거나 스스로 자살하는 경우까지 나타난다. 이 외 차량사고 등으로 인한 뇌손상은 또한 잠재적으로 폭력범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뇌동맥경화, 간질, 노인성 치매, 코르사코프증후군 등도 뇌에 상당한 손상을 주는 질환들이다. 이들 질환들은 기억력을 감퇴시키거나 환상을 느끼게 하거나 어른이 아동과 같은 행동을 하는 퇴행성 반응들을 수반한다. 이에 잘못할 경우 잠재되어 있던 폭력성을 일깨워 심각한 수준의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 － 뇌의 화학작용과 범죄

신체 내에서 생산되어 작용하는 화합물질 가운데 범죄와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종류로는 엔드로젠, 도파민, 부신수질호르몬, 세로토닌, 모노아민옥시다제, 감마아미노낙산 등이 있다. 이들 생체화합물질의 양이 비정상적으로 많거나 적을 경우 폭력성을 일깨운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한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 (3). 유전과 범죄

최근의 범죄생물학자들은 가계연구와 같이 협소한 대상보다는 오히려 유전적이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범죄학에 있어서 세대간의 관계나 유전과 관련된 연구가 어려운 것이 세대 간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길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까지 부모세대로부터 유전되는 것으로 확인된 성격상의 유형으로는 외향성, 개방성, 쾌활성, 조심성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성격형은 부모로부터 상당부분 유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이 간접적인 것이 아닌 직접적인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성격 이외의 범죄성에 있어서도 유전적인 부분이 강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정신분열증을 들고 있는데 이 정신병질은 그대로 후손에게 유전되어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는 것이 정신의학계의 정설이다.

그 외 정상적인 남성은 XY형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여성은 XX형 성염색체를 가지나 유전적인 이상으로 인해 Y염색체를 하나 더 가지게 된 남성은 그만큼 남성적인 성질을 더 많이 가지게 되며 성적으로 정상인들보다 훨씬 왕성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잠재적인 범죄성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평가와 내용들이 극히 비인간적이며 인권에 대한 침해소지가 높다는 점이다. 개인이 타고난 선천적인 유전형질만으로 이들이 무조건 범죄자라는 식의 매도를 하는 것은 많은 모순점과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 － 쌍둥이 연구

범죄적인 형질과 성향이 유전된다면 쌍둥이들의 반사회성이나 범죄성, 비행성 등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야 한다. 하지만 쌍둥이들은 같은 주거환경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양육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에게 나타나는 반사회성이나 범죄성이 유전적인 것인지 후천적으로 사회에서 교육받은 것인지에 관해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생물학적 범죄 특질론자들은 이란성 쌍둥이와 일란성 쌍둥이를 상호 비교연구해 보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아주 다르다. 만약 범죄성이 유전되어진다는 사실이 정확하다면 이란성 쌍둥이보다는 일란성 쌍둥이에게서 비행이나 범죄의 일치율이 더 크게 나

타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쌍둥이에 대한 초기연구에 따르면 일란성 쌍둥이가 이란성 쌍둥이에 비해 훨씬 더 높은 비행이나 범죄의 일치율을 보였다. 이는 유전적인 부분이 작용하였다는 점을 상당부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전과 범죄성에 대한 상호관련성을 뚜렷하게 검증하고 증명할 만한 도구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불리 결론을 낼 수는 없다.

#### － 입양아 연구

범죄성이 선천적으로 유전적인 부분에 의해 좌우되며 유전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성장과정에서 행동이나 사고가 형성된다는 점을 전제로 할 경우 입양된 아이들은 입양된 가정의 양부모보다는 원래 생부모들을 더 많이 닮아야만 한다. 이와 같은 가정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범죄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자녀와 부모간의 접촉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부모가 나타내는 특정한 유형의 행동패턴을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arry Hutchings와 Sarnoff Mednick의 연구에 의하면 생부모의 범죄적 성향이 후손인 양자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친아버지가 가지는 폭력성과 공격성, 범죄성, 반사회성 등이 다른 가정으로 입양된 그 아들에게 그대로 전해질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직접적으로 유전적인 영향이 다른 가정으로 입양된 자녀에게까지 그대로 미치며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양부모의 영향은 훨씬 덜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 나. 학자적 분류

### (1). 신체적 원인연구

#### － 롬부로조(Lombroso, Cesare)

범죄자 중에는 기회범이나 걱정범과는 달리 생래적으로 범죄의 운명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진화가 덜 된 격세유전인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특정한 신체타입을 가지고 있어 비범죄인들과는 뚜렷이 구별되며 이것을 ‘생래적 범죄인’이라 한다.

#### ▼롬부로조의 생래적 범죄인의 특징▼

㉠. 머리부위 특징	구불어진 코, 쑥 들어간 턱, 늘어진 귀, 튀어나온 이마, 높은 광대뼈, 큰 눈썹, 듬성듬성한 턱수염, 부정한 치열, 빨간 머리 카락
㉡. 신체적 특징	왼손잡이, 매우 긴 팔, 기형손가락, 빈약한 체모, 손바닥의 외선, 나이에 비해 많은 주름살, 소두증, 대두증, 사팔뜨기, 비대칭적인 안면
㉢. 정신적 특징	도덕감정의 결여, 무모함, 지나친 게으름, 충동성, 복수심, 잔혹성, 허영심, 도덕성의 결여, 성적충동의 조숙, 자기 중심적
㉣. 행태적 특징	몸에 문신, 과도한 몸동작, 유창한 화술, 과도한 도박 음주, 무생물의 인격화

## - 고 령

8년간 96개 항목의 신체특성조사결과 범죄자와 비범죄자 사이에는 몸무게와 키를 제외하고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고령도 범죄자들이 일반인보다 키와 몸무게가 더 작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열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 크렛취머

### ①. 정신병자 연구

크렛취머는 1925년 독일에서 260명의 정신병자를 조사한 결과 정신병자들에게 특징적인 신체타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②. 신체타입 구분

가. 허약형 나. 투사형(운동선수형)

다. 비만형 라. 혼합형

※ 허약형과 운동선수형은 정신분열증과 연관, 비만형은 조울증과 연관있다고 주장

## - 모어와 건드레이크

### ①. 재소자연구

모어와 건드레이크는 1929년 미국 일리노이에 있는 주 형무소에 재소하고 있는 254명의 백인 남자를 연구했다.

### ②. 신체타입

비만형은 사기, 폭력, 성범죄와 연관되어 있고, 허약형과 운동선수형(투사형)은 주거침입절도, 강도와 절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 후 톤

### ①. 범죄와 인간

하버드대학의 인류학자인 후톤은 고령의 조사방법을 비판하면서, 미국 18개주에서 17,000명의 범죄자와 비범죄자를 뽑아서 신체타입과 범죄와의 관계를 조사했다.

### ②. 범죄자의 신체적 열등성

후톤은 범죄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거의 모든 신체조건이 열등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 - 셸 던

### ①. 비행지수

셸던은 1949년 200명의 15세부터 21세까지의 소년들을 대상으로 체격, 지성, 그리고 비행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는 비행지수를 작성하여 1-10까지의 단계 중 7을 초과하는 소년들에 대해서는 보호시설수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②. 체격형 연구

소년들의 체격을 몸의 각 부분을 1부터 7까지 점수를 매겨, 내부엽우월형(비만형), 중배엽우월형(운동선수형, 투사형), 그리고 외배엽우월형(세장형) 등 3가지로 분류하였다.

## － 기록 부부

### ① 비행소년 체격 연구

기록부부는 500명의 비행청소년과 무비행청소년을 비교 조사한 결과, 비행청소년들이 무비행청소년보다 좁은 얼굴, 넓은 가슴, 크고 넓은 허리, 큰 팔뚝 등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무비행청소년의 31%가 운동선수형(투사형)이었음에 비해, 비행청소년의 61%가 운동선수형 이었다.

### ② 체격형과 범죄성

범죄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운동선수형 다음으로는 혼합형, 내배엽우월형, 외배엽우월형 순이었다.

## (2). 범죄성과 유전적 결합

### － 의의 및 분류

유전은 혈연의 유전자에 존재하는 유전적 결합으로, 혈연가운데 유전에 의한 내인성 정신병, 정신병질, 정신박약, 음주기벽성, 폭력성이 부모로부터 자손이 이를 물려받아 범죄의 원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 결합이 부모에게 있는 경우를 직접부인이라고 하고, 조부모에게 있는 경우를 간접부인, 부모의 형제에게 있는 경우를 방계부인이라고 한다.

### － 스 톱 플

누범자의 경우, 195명중 6%가 유전적 결합을 가지고 있고, 초범자는 166명중 3%만이 유전적 결합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누범, 조발범, 중한 풍속범 등의 경우에 유전이 나타나는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 － 기록 부부의 연구

비행소년 비교연구에서 부모 중에 유전적 결합이 나타난 빈도를 조사하였으며 비행소년이 정신박약이나 정서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부모 중에 유전적 결합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유전적 영향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

### － 독일의 리이들

범죄자 집단을 범죄성 출현시기에 따라 범죄혈통군(혈연에서 범죄자가 5명이상인 집단), 조발범군(18세 이전에 범죄를 범한 집단), 지발범군(30세 이후에 범죄를 범한 집단)으로 나누어 분류하여 연구했다. 또한 그는 유전적 결합은 범죄혈통군, 조발범군, 지발범군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유전적 영향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

## (3). 범죄인 가계 연구

### － 의 의

범죄인 가계연구란 범죄인, 정신병자, 부랑자, 매춘부 등을 많이 배출한 계보를 연구하여 비정상적인 유전인자가 유전되는 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 고다드의 칼리카그가 연구

고다드는 마틴 칼리카그라는 병사가 정신박약 소녀와의 관계에서 생긴 자손들과 이 병사가 후에 독실한 청교도 여자와 결혼하여 생산한 자손들을 비교하였다. 전자의 경우, 정신이상자, 매춘부 등이 대부분이었는데, 후자의 경우, 대부분 의사, 변호사, 교육자 등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자들이었다. 고다드는 이것이 정신병질 등이 유전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 - 덕데일의 듀크가 연구

덕데일은 한 교도소에 일가족 6명이 동시에 수용된 듀크가를 발견하여, 그 가계의 7대에 걸쳐 709명을 조사한 바, 알콜중독자, 매춘부, 범죄자등이 절반이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 (4). 쌍둥이 연구

#### - 의 의

쌍둥이들이 환경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것이 일치하는 가를 연구하여 사람행위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유전의 영향을 받는 가를 조사하는 것으로 범죄학에서의 쌍둥이 연구란 일란성 쌍생아와 이란성 쌍생아들의 범죄율을 비교하여 범죄성에 타고난 유전적 영향이 얼마나 작용하는가를 연구하는 방법이다.

#### - 랑 계

쌍생아연구를 범죄학에 도입하여 본격적인 연구를 한 학자로서, 일란성쌍생아와 이란성쌍생아를 비교 연구하여, 일란성쌍생아의 경우 범죄 일치율이 더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 - 슈 톰 플

쌍생아의 범죄율 일치조사의 있어, 일치의 개념을 5단계로 나누어 연구의 치밀성을 높였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양 쌍생아가 처벌된 경우	범죄의 비중이 일치하는 경우	범죄의 실행방법이 일치하는 경우	사회적 행상이 일치하는 경우	성격구조가 일치하는 경우

### (5). 양자연구

#### - 의 의

범죄인중 양자로 길러진 사람들을 선택하여 실부와 양부의 범죄경력을 비교분석하여 어느 쪽 부모의 영향이 더 큰 지를 조사하는 연구방법이다.

덴마크에서 143명의 범죄자양자와 143명의 정상인 양자를 조사한 결과, 실부의 범죄성이 자손의 범죄성을 결정하는 데 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는 유전적 요인의 중요성과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모두 강조하였다.

※ 실부·양부 범죄인(36%)> 실부범죄인(21%)> 양부범죄인(12%)> 실부·양부 비범죄인(11%)

### (6). 성염색체 연구

#### - 의 의

인간의 46개 염색체중 성별을 결정하는 XY와 XX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 범죄성과 연관이 있는지를 연구한 것이다.

#### - Klinefelter 증후군에 관한 연구

성염색체중 X염색체가 증가하는 경우 중 특히, XXY형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이 형은 신체적으로는 무정자증, 여성형 유방, 장신 등의 특징이 있고 인격적으로는 지능이 낮고 반사회적 경향이 있고, 자신감이 결여되었다. 범죄경향으로는 동성애, 성범죄, 절도죄의 경향이 있다고 주장되었다.

### - XYY형에 대한 연구

1961년 샌드버그는 XYY 염색체를 가진 사람들이 XY형보다 더 범죄성향을 띄기 쉽다고 주장되었다. 특징으로는 장신, 성적인 조숙, 정신적 불안과 저지능, 난폭한 성격, 조발성 범죄자가 많고 일반인에 비해 60배 이상의 범죄율이 높은 것으로 주장되었다. 범죄경향으로는 초범 연령이 13~4세로 일반인의 18세에 비하여 상당히 빠르며 공격성을 띠고 있고 성범죄나 살인, 방화 등의 강력범죄를 범하기 쉽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속 연구가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시도되었는데, 공교롭게도 1968년 미국 시카고의 간호학교의 학생 8명을 살해한 흉악범 스펙이 바로 XYY라는 것이며 같은 해에 프랑스 파리의 한 호텔에서 매춘부를 살해한 휴고라는 사람도 XYY 남자였고 역시 같은 해에 오스트리아에서 여주인을 살해한 하넬도 XYY 염색체 소유자였다.

### - Witkin의 연구

XYY남성들 중 폭력적 범죄자가 더 많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범죄자는 많았고 지능지수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생물학적 요인 분류▼

생물학적 요인	체 형 과 범 죄	크렛치머	쇠 약 형	좁도독, 횡령
			강 건 형	폭력범죄
			비 만 형	횡령과 사기
		셸던	신체긴장형	범죄자 확률높음(근육맨)
			내장긴장형	무기력한 행동(비만)
			두뇌긴장형	키 크고 야됨(쇠약형)
	유 전 과 범 죄	덕데일	범죄자 가계	10세기말 듀크가 연구
		글룩부부		가족의 역사로 비행자와 비비행자 비교
		고링		범죄는 신체적 특징처럼 유전된다.
		갈톤, 랑게	쌍생아	- 쌍생아 범죄 일치율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최초시도(갈톤) - 쌍생아 연구를 범죄생물학에 도입 체계화(랑게)
		.	입양아	
	현 대 의 생물학적 원 인 론	.	유전적 영향	XYY(이상염색체)
		.	신경 생리학적 연구	두뇌의 전자파 측정
		.	생화학적 요인	신범죄학에서 범죄가 생화학적 결핍이나 불균형으로 인한 감정적 장애



## 2. 범죄심리학적 요인

심리학적 원인론은 개인의 정신상태나 심리상태를 중심으로 범죄현상을 설명하는 입장이다. 심리학적 이론들은 우선 사람들이 시간의 흐름이나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변화하지 않는 자기 나름대로의 정신적 혹은 심리적 특성이 있다고 가정한다. 예컨대 ‘세살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우리 속담과 같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에 자기 나름대로의 심리학적 지향성이나 행동습관을 갖게 되며 이후 범죄행위는 바로 이러한 개인의 심리적 지향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범죄와 관련된 대표적인 성격 특성으로 과잉 통제적 성격, 성격외부환경에 대한 내부 통제자, A형 행동유형, 외향적 성격, 낮은 자기 존중감, 낮은 자기 통제력 등이 거론된다.

생물학적 이론들은 개인의 속성을 신체적 조건, 뇌기능, 생화학적 특성 등 유기체적 특성측면에서 찾는 반면에 심리학적 이론들은 심리상태, 성격, 성향 등 정신적 측면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가. 심리학적 요인 종류

심리학적 요인의 종류에는 정신분석학, 성격과 범죄, 정신 병리적 성격과 범죄, 대인 성숙과 범죄, 정신박약과 범죄, 지능과 범죄, 정신병과 범죄 등이 있다. 정신 의학적 접근방법은 의료적 관점으로, 정신 상태나 심리상태의 이상이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정신 외과적 분석에 속하는 반면에, 정신 분석학은 개인의 성장과정이나 생활과정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심리 상태 및 정신 분석이 연쇄살인 및 범죄의 요인이 되는데 이 중 대표적 3가지 요인인 정신분석학, 성격과 범죄, 정신 병리적 성격과 범죄에 대하여 알아보자.

#### － 정신분석학(프로이드)

##### ①. 성격발달 5단계

프로이드는 사람의 성격발달이 5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첫 번째 단계는 입을 통해 쾌락을 얻는 구강기(0세~1세), 두 번째 단계는 배설을 통해 쾌락을 추구하는 항문기(1세~3세), 세 번째 단계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나를 동일시하게 되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형성되는 남근기(3세~6세), 네 번째 단계는 성에 대한 관심이 억제되고, 또래들과 사회성을 기르는 잠복기(6세~12세),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사춘기와 질풍노도의 시기인 생식기(12세 이후)단계로 나누었다. 여기서 프로이드는 사람의 성격이 6세 이전, 즉 남근기 이전에 형성된다고 하였는데 이 시기에 성격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으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성격발달 5단계▼

순 서	구 분	나 이
첫 번 째	구 강 기	0 ~ 1세
두 번 째	항 문 기	1 ~ 3세
세 번 째	남 근 기	3 ~ 6세
네 번 째	잠 복 기	6 ~ 12세
다섯번째	생 식 기	12세 이후

##### ②. 인간의 인성을 세 가지로 구분

프로이드는 한 개인의 인성을 크게 이드, 에고, 슈퍼에고로 세분화하였다. 여기서 에고란 의식할 수 있는 인성이며 반면에 이드와 슈퍼에고는 의식할 수 없는 인성으로 즉 자신의 모습이다. 범죄자는 이드의 발달이 높고, 에고와 슈퍼에고의 발달이 낮으며 충격을 받은 시기가 어릴수록, 충격이 심할수록, 일찍 범죄에 가담하고 범죄가 상습화 된다고 보았다.

▼인 성 구 분▼

구 분	내 용
이 드 (id, 원초적 자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지고 태어나는 것(선천적)</li> <li>- 비합리적, 본능적, 반사회적인 무의식 상태로 쾌락을 추구</li> <li>-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통제되고 다듬어져야 함</li> </ul>
에 고 (ego, 자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식적, 합리적인 부분</li> <li>- 이드와 초자아의 균형을 잡아줌</li> </ul>
슈퍼에고 (superego, 초자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미숙할 시 범죄를 초래</li> <li>- 도덕적, 양심적인 부분</li> <li>- 자아비판력, 양심, 내적규제(원초적 자아인 이드를 잡아주는 역할)</li> <li>- 남근기(3세~6세)에 발달</li> </ul>

③. 어린 시절부터 성격이 왜곡된 사람이 과연 형벌을 두려워할까?

프로이드는 형벌의 위하력이 잠재적 범죄자인 일반인에 대한 위협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려고 한다는 것을 부정하고, 처벌보다는 치료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 성격과 범죄

범죄자의 심리상태를 고찰하는 경우에 흔히 고려하는 요소 중의 하나는 성격이다. 성격이란 지적 능력과는 별도로 한 개인의 특징을 지칭한다.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성격론에서 주장하는 바는 범죄자는 정상인들과는 달리 비정상적이고, 부적합하고, 범죄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범죄행위란 충동성, 폭력성, 자극 추구성, 반발성, 적대감 등과 같은 개인의 성향이 표현된 것 뿐 이라는 것이다.

①. 글록부부의 <로샤 검사> 연구

글록부부는 비행소년 500명과 일반소년 500명을 성격의 심층심리상의 특징을 보여주는 로샤 테스트에 의해서 비교한 후에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전체적으로 비행소년들은 외향적이며, 활발하며, 충동적이고, 자제력이 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대적이고, 화를 잘 냈으며, 도전적이었고, 의심이 많았고, 파괴적이었다. 또한, 정상소년에 비해 실패나 패배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②. 왈도(Waldo)와 디니츠(Dinitz)의 MMPI 연구

왈도와 디니츠는 1950년에서 1965년 사이에 MMPI를 이용하여 범죄자의 성격프로파일을 조사한 94편의 연구들을 재분석하였다. 그 결과 94편의 연구 중 80%에서 범죄자와 정상인 사이에 통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성격프로파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0가지 성격측면에서 가장 현저한 차이가 있었던 곳은 제4척도, 즉 정신 병리적 이탈부분이었으며 이에 따라 왈도와 디니츠는 범죄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정신 병리적 이탈경향이 강한 성격이라고 특징 지을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는 가석방 판결 시 사용되기도 하였다.

－ 정신병리적 성격과 범죄

정신 병리적 성격이란 정신의학 분야에서 범죄발생의 원인으로 특히 중요시하는 사항이다. 정신 병리적 성격 혹은 사회 병리적 성격, 반사회적 성격으로 불리는 이러한 성격은 성격의 이상정도가 정상성을 크게 벗어나 거의 병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며 정신병리자는 이러한 성격을 소지한

사람을 뜻한다. 이들은 성격상의 근본적인 장애로 인해 조그마한 자극에 대하여도 격렬한 감정의 폭발을 일으키는 자극과 반응의 부조화를 경험한다든지, 생물학적 욕망 등 감정생활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결핍되어 행위관련 요소 간에 기능적인 협동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반사회적 행위에 그만큼 쉽게 빠져든다는 것이다.

①. 슈나이더(Schneider)의 정신병질 10분법

순번	구 분	내 용
1	발 양 성 정신분질	자기 자신의 능력과 운명에 대하여 과도하게 낙관적이며, 이로 인해 경솔하고 불안정적인 면을 갖는 성격자이다. (절도, 사기 등 )
2	우 울 성 정신분질	염세적, 비관적인 인생관에 빠져 항상 우울하게 지내며 자책적 이다. 그들은 항상 최악의 사태를 생각하고 과거를 후회하며 장래를 걱정하는 일을 한다. (자살 가능성 높음)
3	의지박약성 정신분질	의지는 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추진하는 능력으로서의 외향적 의지와 외부로부터의 공격, 유혹 앞에서 자기의 소신을 지키는 내면적 의지가 있는데, 의지박약성 병질자의 경우 이 양자 모두에서 박약성을 지녀 주변 상황과 주변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우왕좌왕한다. (재범률이 높은 상습범죄자.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유형)
4	무정성 정신분질	인간이 고유하게 갖는 고등감정인 타인에 대한 동정심이나 연민의 정이 박약하고 수치심, 명예심, 공동의식, 양심의 가책 등이 결핍되어 방자하게 행동한다. (강력범죄자, 흉악범죄자. 가장 문제가 되는 유형)
5	폭발성 정신분질	병적 흥분자라고도 한다. 사소한 자극에 대해 병적으로 과도하게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고, 전후를 고려함이 없이 닥치는 대로 던지고 때리고 폭언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6	기분이변성 정신분질	기분의 동요가 심하여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7	과장성 정신분질	허영성 병질자라고도 하며, 자기를 사물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등 자기를 실제 이상으로 높이 인식하는 성격자이다. (화이트칼라 범죄자)
8	자신결핍성 정신분질	자기의 우월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나 자기의 능력부족을 늘 의식하여 주변 사정에 민감하고 어떤 강박현상에 쫓기는 듯 하는 복잡한 심경의 소유자이다.
9	광신성 정신분질	어떤 가치 관념에 열중하여 그것을 외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선전, 주장하고 그 소신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종교 범죄자)
10	무력성 정신분질	이들은 심신의 부조화 상태를 늘 호소하면서 관심을 자기에게만 돌리고 동정을 바라는 성격이다.

⇒ 이 중 ②, ⑧, ⑩은 범죄와 거의 관련이 없다.

## 나. 사이코패스

1920년대 독일의 쿠르트 슈나이더(Kurt Schneider)가 처음 소개한 개념으로 보통 반사회적 인격 장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들은 발정·광신·자기현실·의지결여·폭발적성격·무기력 등의 특징을 지닌다. 이들의 정신병질(精神病質, Psychopathy)은 평소에는 내부에 잠재되어 있다가 범행을 통하여서만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미국 브루크 하멜 국립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감정을 지배하는 전두엽 기능이 일반인의 15%밖에 되지 않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고통에 무감각하므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받게 될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재범률도 높고 연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일반 범죄자들보다 높다. 또 공격적 성향을 억제하는 분비물인 세로토닌이 부족하여 사소한 일에도 강한 공격적 성향을 드러낸다고 한다. 사이코패스는 이 같은 유전적·생물학적 요인에 사회적·환경적 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전인격적 병리현상으로 본다.

### - 특 징

사이코패스의 특징으로는 먼저 타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공감능력결여가 있다. 이는 끔찍한 장면을 보았을 때, 정상인과 사이코패스살인범과의 뇌 비교를 통해 알 수가 있다. 죄책감결여와 자기 합리화 또한 사이코패스의 또 다른 특징이며, 사이코패스는 교활하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사이코패스의 원인은 크게 유전적, 생물학적(선천적)요인과 환경적(후천적)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선천적 요인으로는 뇌파의 이상, 비정상적인균형을 보이는 뇌반구의 기능, 호르몬 분비이상, 자율신경계가 있다. 사이코패스의 뇌반구 기능은 얼굴에 나타나는 감정의 표현을 정확히 읽는 좌뇌와 감정을 경험하는 우뇌가 결함을 보이는 것이다. 호르몬 분비이상은 몸속의 효소를 조절하는 유전자가 전두엽의 기능을 줄어둘게해 하고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자율신경계는 둔감한 교감신경계와 민감한 부교감신경계로 구성되어 있다. 사이코패스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매우 담담하고, 말초신경계가 둔감하여 무감정적 이다. 그리고 공감이나 후회, 자책이 결여되어 있으며, 쉽게 거짓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후천적 요인인 환경은 유전자와 상호작용 하느냐에 따라서 사이코패스가 결정되기도 한다. 사이코패스의 유전적 요인이 매우 높더라도 매우 따뜻한 가정에서 성장환경이 건전할 경우 사이코패스 발현 가능성은 낮아진다. 반대로 유전적 요인은 다소 낮더라도 나쁜 환경에서 성장할 경우 내부적으로 스스로 사이코패스 성향을 학습하게 되어 사이코패스 발현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런 후천적 요인으로는 유년기 학대경험, 범죄경험, 경쟁사회를 들 수가 있다.

### ▼사이코 패스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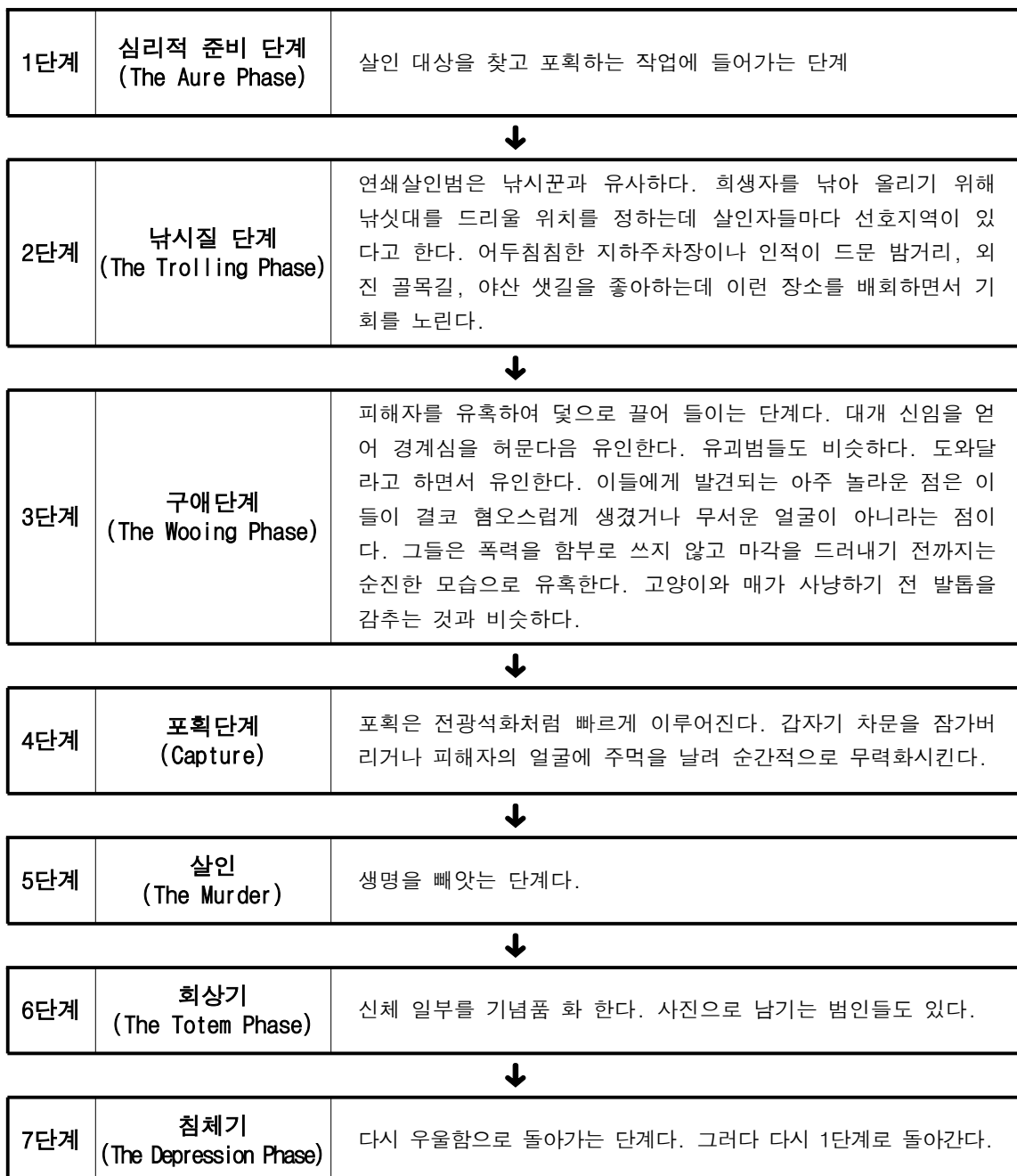
공감능력결여

죄책감결여와  
자기합리화

교활하고  
상습적인  
거짓말

## 다. 연쇄살인 심리 7단계

폭력과 살인행위에 대해 다년간 연구한 여러 전문가들의 협력으로 이러한 연쇄살인의 의식을 7단계로 분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살인을 하는 그 순간 극히 폭발적인 성적 오르가즘을 느낀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성적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 대상을 몰색하고 구애하여 침실로 끌어들이고 진회를 거친 다음 삽입하고 성적 만족에 이르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연쇄 살인7단계’라는 일련의 정해진 수준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7단계 분류는 미국과 영국에서 연쇄살인 사건의 수사와 연구에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 3. 범죄사회학적 원인

연쇄살인은 가정, 학교교육, 직업 등의 사회적 문제가 동기유발 등으로 이어져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어릴 때부터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했을 때 생기는 좌절감이라든지, 멋있게 우아하게 꾸미면서 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돈이 없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이처럼 목적(욕구)과 수단(수입 등 현실적 제약)간의 괴리가 클수록 범행 욕구가 생긴다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기준이 흔들릴 경우에도 흉악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과거에는 노인을 위해 거의 무조건 적으로 자리를 양보했으나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처럼 사회 가치기준이 변하면서 흉악범죄 발생률이 매우 높아졌다.

특히, 사회경제적 상황은 범죄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된다. 부의 불평등이 클수록 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며 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분노로 이어지게 되면 이는 곧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문제의 더 큰 심각성은 이들에 의해 상처받는 사람들이 상류계층이 아니라 피해자도 모두 사회적 약자라는 데 있다. 바로 약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환경 요인을 들 수 있다. 연쇄살인범의 환경적 요인은 어린 시절의 학대, 애정결핍, 방치의 경험으로 기인할 수 있다. 어린 시절 학대를 받은 아이는 스스로 남에게 고통을 주는 폭력적인 방법을 학습하게 되는데 이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은 벌의 형태로 피해자들을 다루는데 반영된다. 이런 학대는 단순한 위축과 같은 행동적 변화만을 야기 시키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충동을 조절하는 부분의 손상이나 뇌의 미발달을 가져온다. 또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경우 학대의 후유증은 8-12세에 모든 부정적 성향을 고착화 시키고 이런 아이들은 사춘기에 갖는 성적 활동에서도 이성과의 자연스런 관계가 아닌 혼자서 자기 색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한다. 나아가 12-14세에는 여자를 강간하는 상상을 일으켰고 80%이상이 포르노를 보고 성도착 및 관음증의 경향을 나타냈다.

물론, 이런 요인을 갖는다고 해서 모두가 연쇄살인범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정적 원인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고 또한 어느 특정요소보다는 다양한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 범죄가 진전된다고 할 수 있다.

#### 가. 가 정

가정은 사람이 출생하면서 최초로 갖는 인간관계이고 가장 기본적인 사회단위로서 가족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및 문화적 집합개념이다. 가족은 생물학적으로는 성적 결합에 의한 부부와 자연적인 혈족관계에 있는 친자 집단으로서 부부의 성과 생식기능을 가지며, 심리학적으로는 부부 및 친자 상호간의 애정, 존경,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집단으로서 가족구성원의 정서안정기능을 가지고, 사회학적으로는 부부와 친자 상호간의 부양 및 양육을 위한 결합체로서 친자의 부양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가정은 청소년이 세상에 태어나 먼저 접촉하는 최초의 사회집단이고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관심의 터전이다. 따라서 가정은 성인보다 훨씬 환경감수성이 강한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대하여 특히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 (1). 가정결함의 형태

### - 결손가정

결손가정(broken home)이란 양친 모두가 어느 일방이 없는 가정을 말한다. 그 원인으로는 사별, 이혼, 별거, 유기, 실종, 수형, 장기부재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양친이 모두 있더라도 가정의 본질적인 기능인 생활의 상호보장(형태적 결손가정)과 자녀에 대한 심리적 및 신체적 양육이 결여되는 가정(기능적 결손가정)도 동일한 선상에서 검토해야 한다. 이런 결손가정은 교양이나 학력의 부족, 정서발달 장애, 가족의 좋지 못한 형태 등 비훈련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소년을 비행 내지 범죄로 몰아넣는 중요한 원인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종래 범죄학에서 가정의 결함 가운데 범죄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것이 바로 결손가정이다. 한편 결손가정이 아동의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부친을 잃는 경우와 모친을 잃는 경우 중 어느 것이 아동에 대하여 위험이 더 크겠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일치하지 아니하나 오늘날의 지배적인 학설에 의하면 부모를 잃은 연령기에 따라 다르다. 결손가정과 관련하여 계부모와 그 아동의 관계도 문제로 되는데 결손된 실부모를 대신하는 계부모와 아동 사이 조금도 정신적 갈등이 없이 원만히 지내면 기능적으로 구존가정이라 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손가정과 다름이 없고 더욱이 계부모의 학대 등으로 인하여 아동이 불량화 될 위험이 한층 커질 수도 있다. 결국 결손가정은 결손가정 그 자체가 문제로 된다고 보기는 결손이 야기하는 가정의 기능적 결함이 문제로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위 기능적 결손가정이라는 측면에서 연구되어야 할 문제가 많다.

### - 빈곤가정

빈곤 그 자체만으로는 도덕적으로 불량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경제적 사정은 사람의 인격형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정의 빈곤이라는 사정은 여러 가지 의미로 비행과 범죄를 유발하는 동기로 된다.

### - 비행가정

비행가정이란 반드시 범죄자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의미에서 사회적 부적응자가 가족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 이러한 비행 가정과 소년비행의 상관성은 범죄성의 유전에 대한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 비록 범죄성의 유전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유아시부터 가족구성원들의 일탈적인 가치관이나 행동유형을 접촉한 소년들이 인격형성에 커다란 장애를 받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비행가정은 형태적으로 아무런 결함이 없으나 가정이 가지는 기능이 현저하게 손상되어 있다는 점에서 넓게 보면 기능적 결손가정이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가정에 있는 소년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가정 자체의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범죄나 비행이라는 하층문화에 익숙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 - 갈등가정

갈등가정이란 가족 간에 감정, 이해 가치관등 심리적 갈등이 존재하여 인간관계의 융화가 결여된 가정을 말한다. 가정 내의 다른 구성원 상호간에 이런 갈등이 있는 경우나 직접 소년과 가족의 일원 사이에 긴장이나 갈등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직접 및 간접으로 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 시설가정

시설가정이란 고아원 등 기타 아동양육시설이 가정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시설에서 자라난 아동은 그 시설직원과의 사이에서 애정과 친밀성을 느낄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반항적,

거부적 심정을 가지거나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를 나타내기 쉽고, 그만큼 반사회적 행위에 빠지기 쉽다. 고아원 등의 시설이 아무리 잘 되어 있더라도 유아에게 인간정서의 근원인 모친의 애정을 줄 수 없는 한, 완전한 사회적응성을 배양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모든 시설가정의 소년들이 비행소년이나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 (2). 가정의 기능적 결함요인

### - 친자간의 애정관계

양친의 애정에 대한 태도나 양친의 존부, 가족 간의 애정관계가 범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같은 가족 구성원 간에 애정적 유대가 약해지거나 끊어지게 되면 가정은 쉽사리 무너지고 가정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가족구성원의 비행에 대한 통제력 및 가족구성원 상호간의 동일화에 호소함으로써 유지되어 왔던 일탈통제력 등이 상실되게 된다. 자녀에 대한 애정을 거부한다는 것은 자녀를 질책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혀 질책하지 않는 형태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양친으로부터 질책을 받기 위하여 행하는 자기징벌로서 비행을 저지르는 소년 대부분은 양친으로부터 무시 받고 방임되어 있다.

### - 가정의 결함도

가족구성원 중에서 특히 양친간이나 친가간의 갈등, 가치관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의 결함도가 낮아지고 그로 인하여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 친자간의 가치관의 대립은 연령차에 의한 경우도 있고 자연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출세, 금전, 명예, 선악, 결혼, 학력, 인간의 가치기준 등에 관한 가치관의 대립이다. 결국 가족의 결함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친자간의 가치관의 갈등에 기인한 결함도의 약화와 일탈된 가치관을 가진 부모에의 동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두 측면이 가족의 결함도를 약하게 하고 소년을 비행으로 나아가게 하는 작용을 한다. 현재 남자의 경우에는 대가족의 소년보다 핵가족의 소년의 경우에 범죄률이 높는데 이것은 대가족보다 핵가족의 경우가 가정 내의 갈등으로 인한 가족 결함도의 약화에 더 큰 영향을 받고 남자가 여자보다 그 영향을 더 쉽게 받기 때문이다.

### - 가정교육

대부분의 교육이 가정 이외의 사회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자녀교육의 터전은 여전히 가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교육은 부모나 그 가정이 가치관을 자녀에게 심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소년의 행동에 특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가정교육의 일관성, 가정교육의 기술, 자녀에 대한 관심의 정도, 자녀교육의 이면으로서의 부모의 권위 등을 들 수 있다.

### - 가정 내의 폭력범죄

가정폭력은 피해대상에 따라 아내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으로 분류되어 진다. 가정폭력의 유발요인으로서 첫째, 빈곤과 실업, 부족한 삶의 조건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부부간의 잦은 논쟁, 종교상의 갈등, 결혼문제 등이 그 요인이 된다. 셋째, 아동기의 학대 경험과 낮은 자아 존중감, 알코올과 약물중독 등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일반적 대책으로는 사회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경찰의 인식도 전환되어야 하고, 규범적 대책으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법의 적용과 효율적인 사법기관의 대응이 필요하다.



## 나. 학교교육

사람들은 교육을 통하여 그 사회의 고유한 지식, 기술, 생활양식 등을 습득하고, 사회규범을 자기의 행동기준으로서 내면화하게 된다. 학교교육과 범죄의 관계는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고찰하여야하는데 첫째로 일반적 및 문화적 환경으로서의 학교교육이고 둘째로 개인적 및 훈육적인 환경으로서의 학교교육이다.

### (1). 일반적 환경으로서의 학교교육

일반적 환경, 즉 문화적 환경으로서의 교육제도 특히 학교교육이 국민의 범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에 대해서는 학교교육이 범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견해와 범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 (2). 개인 환경으로서의 학교교육

학교교육이 개인적 환경, 즉 훈육적 환경으로서 개인의 인격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학교에서는 부모와는 관계없이 교사, 학우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이념과 행동양식을 습득하게 된다. 다만 학교에서 습득한 것이 장래의 범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는 범죄학에서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종래 학교교육과 범죄의 관련에 대해서는 주로 범죄자의 성적과 학습태도가 문제로 되어 왔다. 말하자면 학교에의 적응 여부는 비행과 관계되는 것이고 성적불량과 학습태만은 범죄 내지 비행의 원인으로 된다.

### (3). 학생범죄

교육의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에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학생범죄이다. 국민들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커지고 이와 함께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자들 가운데에도 대학생들을 포함해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교육과 범죄의 문제에서 학력과 범죄의 관계보다 학생범죄 자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다. 직 업

직업이라는 후천적인 사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범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직업의 유무나 종류가 범죄와 관계있다는 근거로서 특정한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그 사람의 경제적인 생활정도가 결정된다. 직업에 의하여 자신과 그 가족의 생활환경이 정해진다. 특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지능, 성격 등 소질적인 성격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불안정한 직업에 있거나 전직인 심한 것은 개인의 인격적 특성이 바람직하지 못하고 사회적응능력도 낮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징표가 된다.

### (1). 직업별 범죄성

직업은 일정한 사회적 지위에 표상으로 인격적으로 제약된 환경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직업은 가정이나 사회적 환경이라는 외부적 조건에 의하여 제약받는 동시에 성격, 재능, 체격 등 인격적 특성도 직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그리고 직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일정한 범죄를 수행할 능력을 제공하기도 하며, 일정한 직업에 따라 형성된 정신적 태도가 범죄를 자극하거나 억제기능을 둔화시키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직업별 범죄율을 보면, 향락성 환경에 접해있는 불안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범죄율이 높은 편인데, 농림업자, 상공업자, 교통업 종사자가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한다. 직업별로는 기타 자유업, 학생, 기타

상업, 회사 등에 의한 범죄의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학생범죄를 제외하면 대부분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산업별 인구의 구성비의 변화, 3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직종의 다양화 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실업과 범죄

직업과 관련하여 실업과 범죄의 관계이다. 실업은 자본주의 사회의 불가피한 부산물로서 계절적 및 경기적 실업, 만성적 실업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계절적 및 경기적 실업은 단기적인 것으로서 자연적 혹은 경제적 조건 및 자본주의경제의 자동조절기능에 의하여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므로 형사정책상 큰 문제가 없으나, 만성적 실업은 장기적으로 생활 곤란을 초래하고 그것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인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 IV. 대 책

연쇄살인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생각해 볼 때, 무엇이 효과적이고 올바른 범죄대책인가를 물음에 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범죄대책에 만병통치적인 묘방이 있는 것도 물론 아니다. 그와 같은 묘방이 있었다면 범죄문제는 벌써 해결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인류가 범죄와 투쟁해 온 그동안의 경험과 역사의 교훈, 과학의 성과와 현대문명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보편적 원리에서 그 답을 찾으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 1. 개인적인 측면

(1) 혼자 있지 말고 자신의 위치를 가족이나 주위사람들에게 말하고 범죄자들의 눈에 띄게 행동하지 말아야 하며 초기에 범죄에 노출됐을 때 경찰에 빨리 신고해야 한다.

(2) 한적한 곳에 주차하는 것을 피하고 늦은 시간에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에도 가급적 어두운 빈자리를 피하는 것이 예방의 지름길이다.

(3) 택시 강도, 늦어도 합승 피해야 한다. 택시를 이용할 때도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 이때를 대비해 휴대폰 단축키 특정번호에 112를 입력시켜 놓고 긴급 상황 시 사용하거나 소형 호루라기를 휴대폰에 부착했다가 위급 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 야간 · 심야시간대에 외출을 삼가고, 불가피할 경우 가족이 마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귀가가 늦더라도 합승은 자제하고, 운전석 옆 좌석보다는 뒷좌석에 탑승하는 것이 좋다.

## 2. 연쇄살인 범죄의 발생 전 예방이 우선

올바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제로서 우리는 우리사회에서 범죄를 완전히 전멸시킬 수 없고 따라서 우리의 현실적 목표는 범죄를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는데 둘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이러한 범죄가 사회악이기는 해도 범죄 없는 사회를 상상하기는 어렵고, 그런 점에서 범죄는 사회적 기생요소가 아니라 그 정상적인 일부분이라고까지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쇄살인 범죄의 발생 원인부터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정신적인 이상에서 오는 원인은 막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범죄자들이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은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들이 심리적·사회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요인은 그들이 심리적으로 그들은 자신이 혼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사회 속에서도 소외받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 사람이 나서 자라고 성인이 되어서 겪게 되는 사회적인 접점을 중심으로 교육, 제도, 문화, 법체계, 복지정책 등이 어떻게 맞물려 가는지를 빈민,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면밀한 연구와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연쇄살인범의 대부분이 어렸을 때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에서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없었고 그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과 증오를 어디에도 터놓고 얘기할 수 없다는 우리 사회의 교육적인 구조나 제도적인 문제가 그들을 되돌릴 수 없는 나락으로 빠뜨리게 된다.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받고 사회에서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노력했다면 그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범죄가 발생하기 전 예방단계에서는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협력하여 교육적·사회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여 사회기강을 확립하고 사회를 정화함으로써 범죄가 애당초 뿌리내리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예방대책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대응방안이라 생각한다.

### 3. 과학적인 수사기법의 개발·훈련

범죄가 발생한 후에 최선의 대책방안은 범인을 하루빨리 검거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들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사 인력을 늘리고 과학 장비를 보강하여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개발·훈련하여야 한다.

미국에서만 보더라도 연쇄살인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력을 특정지역 또는 계층에 집중 배치하게 된다. FBI에서는 "행동과학부(Behavioral Science Unit)"의 결성 및 "범죄자특성파악(Criminal Profiling)" 기법을 이용하여 관련정보를 모아 연쇄살인사건 용의자의 성격적 특성(character profile)을 조합해서 지역경찰이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를 찾아내고 취조하는 데 결정적인 지원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일선 경찰서에서 현장 감식을 담당하는 인력은 경찰서당 1~3명이 대부분 이어서 1명인 곳이 전체의 34%, 2~3명인 곳이 47%에 달할 정도로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태다.

더구나 초, 중, 고급으로 나뉘는 체계적인 과학수사요원 전문교육이 지난해부터 비로소 본격화돼 질적인 자질 향상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 경찰 간부는 "지금껏 경찰의 수사는 지역 내 정보망과 범인의 자백에 의존한 측면이 너무 컸다"며 "이제는 체계적인 과학수사를 도입해 수사의 질을 한 단계 높여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날로 복잡해져 가는 현대도시사회에서는 경찰의 힘만으로는 검거율을 높이기 어렵고 피해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신고·고발 등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요원들은 피해자나 시민들을 괴롭히거나 불편하게 하지 않는 범죄수사를 함으로써 그 인권을 존중하면 시민들의 신뢰가 증대되어 검거율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4. 사회구조에 대한 편견 타파

연쇄살인 범죄 뿐 아니라 최근 범죄 경향은 빈부 격차 물질만능주의로 인해 ‘부유층에 대한 적개심’이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쇄살인의 경우 한 인간이 자신의 불행을 막연하게 남의 탓, 구조 탓으로 돌리는 데서 빚어진 범죄였다는 점에서 모든 탓을 밖으로만 돌리려 하는 것 같은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이라 할 수 있다.

‘부자는 모두 나쁘다’는 식의 사회적인 편견이 우리 인식 속에서 자리 잡게 된 것은 매스컴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밖에 없다. TV 뉴스나 신문만 보더라도 일부 부유층들이 보여주는 비정상적 형태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매스컴을 통해 보아지는 부자들은 자신들의 노력보다는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부를 축적하고, 일반 서민들과는 달리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쉽게 사치를 일삼는 등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다. 매스컴을 통한 이러한 모습들은 일반 서민들을 더욱 허탈하게 만들고 사회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사회구조를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신의 노력에 의해, 자신이 스스로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로 얻어지는 ‘부’를 이루고 이를 사회에 기부하거나 환원하는 모습들을 매스컴을 통해 많이 접할 수 있다면 부자들에 대한 편견 역시 조금씩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5. 범죄인을 재사회화하기 위한 다양한 처우

범죄인들의 교정단계에서는 물론 재판단계에서도 범죄인을 처우함에 있어서는 범죄원인에 관한 과학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범죄인들을 다시 사회에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는 처우를 행하여야 한다.

아직까지 범죄학이 범죄원인을 완벽하게 구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범죄 원인을 토대로 하여 처우를 행한다고 해서 처우의 효과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범죄학의 이론 가운데는 검증 결과 상당한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우수한 이론들이 적지 않으므로 다소간 시행착오는 있더라도 이를 기초로 처우를 실시하고 처우결과를 다시 원인에 반영시키면 범죄학과 형사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여 범죄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걸음씩 다가서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미 교정 분야에서는 처우의 개별화 · 과학화 · 사회화 등 다원화를 통하여 죄인을 재사회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 온지 오래이나, 아직은 초창기에 불과하므로 과학전문가들은 범죄예측과 처우의 과학화를 위해 더 한층 창의를 발휘해야 할 것이고, 법률전문가들은 과학전문가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V. 세계와 국내의 연쇄살인범 개요

### 1. 세계의 10대 연쇄살인범(세계 100대 살인사건 중 가장심한 10개의 살인사건의 살인범을 소개)

#### (1). 네덜란드유학생살인사건의 ‘사가와 잇세이’

프랑스의 일본유학생 사가와 잇세이가 네덜란드에서 온 여자 유학생에게 식인충동을 느껴 총으로 살해를 하고 인육을 먹은 사건이다.



▲영화 '살인의 추억' 포스터▲

#### (2). 화성연쇄살인사건 ‘미상’

한국에서 발생한 최초의 연쇄살인사건의 살인범으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부녀자 10명이 연쇄적으로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되는 잔혹한 살해수법을 사용하여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놓지만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로 공소시효가 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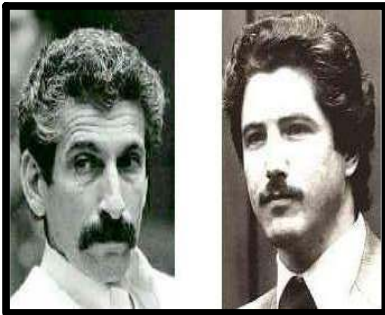
이 사건은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다시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 (3). 테드번디 연쇄살인사건의 ‘테드번디’

1970년대 약 16명의 젊은 여자들을 강간한 후 잔인하게 살해한 미국의 사건으로 이 사건의 범인인 테드번디는 잘생긴 청년이며 엘리트청년으로 주위의 평판이 좋았고 머리도 수재였으며 겉으로 보기에 사교적이지는 않았지만 폭력적으로 보이지도 않아 범인이 무지막지한 살인마가 아니라 범률에 해박한 수재이고 엘리트적인 청년이라는 사실에 범죄학적인 측면에서 교훈을 많이 남기게 하였다.



▲테드번디▲



▲안젤로 부우노& 케네스 비앙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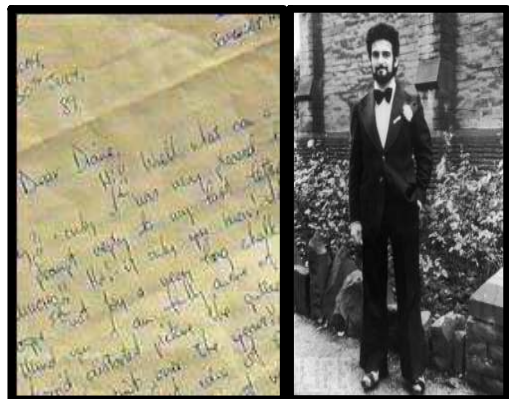
#### (4). 언덕의 살인마-안젤로 부오노& 케네스 비앙키

1976~79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2명의 여성을 강간, 살해하여 근처 언덕배기에 시신을 유기하여 ‘힐사이드 살인마’라는 별칭이 붙여졌다. 먼저 비앙키가 잡혔는데 그는 ‘다중이 행세’를 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촌형인 부오노의 범행도 말했다. 사형을 면해준다는 조건으로 이 둘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여 사형을 면했지만 부오노는 2002년에 사망하였다.

#### (5). 요크셔의 살인마-피터 수트 클리프

1975년부터 1980년까지 영국 요크셔 지역의 밤거리를 누비며 13명의 여성을 칼, 망치 등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그는 요크셔의 살인마로 불린다. 그는 성실한 트럭 운전사 였고 결혼해서 가정까지 꾸렸지만 ‘창녀들을 죽이는 것이 하늘의 계시다’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살인했다. 살인마는 ‘나 잡아봐라, 메롱’하는 편지를 보내 경찰을 조롱하며 범망을 자라 피해 다녔지만 피해자에게서 그의 사인이 적힌 수표가 발견되면서 범행이 발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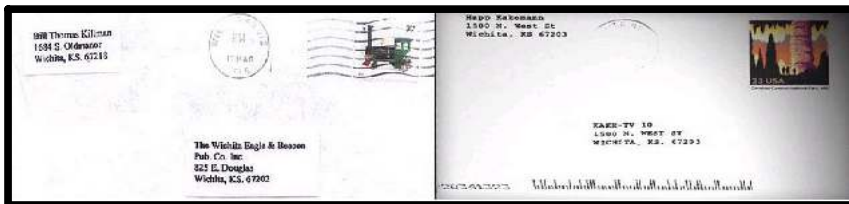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동료죄수를 공격하여 정신병원에 현재 수감되어있다.



▲경찰에게 보낸 편지 & 피터 수트 클리프▲

## (6). BTK 살인사건-데니스 L. 레이더

자칭 BTK킬러라고 불리는 동물제어감독 데니스 L.레이더는 루터교회에서 30년 동안 운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웃을 돕고 산 성실한 기독교인 이었다. 하지만 그는 1973년에서 1991년 사이 미국 위치타 지역에서 10명을 살해했고 자신의 행적에 대한 편지를 보내 경찰을 비웃었다. 그래서 그를 ‘지킬박사와 하이드’와 같은 양면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도 있다. BTK는 묶고(Bind), 고문하고(Torture), 죽인다(Kill)는 의미의 약어로 그가 선호했던 살해방법 이다. 그는 자신이 신자모임의 대표로 봉사하던 교회에서 경찰에게 플로피디스크를 보내고 2004년 체포되었고 연속 종신형 10회를 선고받아 현재 캔사스 주립교도소 독방에 감금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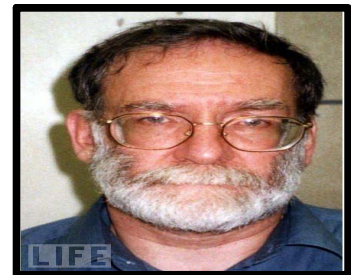
▲플로피 디스크 보낸 편지▲



▲데니스 L. 레이더▲

## (7). Dr. Death- 해롤드 쉬프먼

존경받던 의사인 영국의 해롤드 쉬프먼은 1975년부터 1998년까지 자신의 환자 중 최소 218명을 죽였고 508명에 달하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약물을 주입하였다. 희생자의 재산을 그에게 남긴다는 유서를 위조함으로써 그의 범행이 발각되었다. 2001년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2004년 자신의 감방에서 자살하였다.



▲해롤드 쉬프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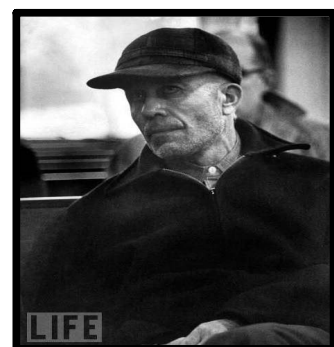
▲유영철▲

## (8). 한국의 연쇄살인범- 유영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망치로 죽인 노인부부를 포함하여 21명을 살해했다. 그는 여성과 부유층에 대한 증오심이 살해의 이유가 되었다고 말했으며 일부 희생자들의 간을 먹었다고 시인하였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최초로 유영철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 (9). 원래 사이코 - 에드 게인

알콜중독 아버지와 광신도 어머니 밑에서 자란 에드 게인은 매우 조용하고 소심하며 소탈한 사람이었다. 그는 부모가 죽은 후 정부 보조금으로 자신만의 거처를 마련하였다. 여가시간에 해부학 책을 읽으며 여자의 몸에 대해 알아갈 수록 스스로 여자가 되고 싶다는 이상충동에 시달려서 1950년대 11명을 살해하였고 희생자들의 시체와 무덤에서 파낸 시체들로 스프그릇, 전등갓 등을 만들었으며 또한 그가 여자행세를 하고 다니기 위해 사용했던 “여자옷”을 만들었다. 1984년 77세로 정신병원에서 자연사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영화 “사이코”, “텍사스 전기톱살인사건”, “양들의 침묵” 등의 모티브가 되었다.



▲에드 게인▲



## (10). 우순경 사건-‘우범곤’

공유지서 순경인 범인은 전모양과 2개월 이상 동거를 하였지만 결혼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자신을 무능한 사람이라고 자책하며 열등감을 가져오던 차 동거녀와 말다툼 후 주민들이 자신을 욕한다는 말에 격분하여 음주를 하고 술에 취한 채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무기고에서 무기를 꺼내 평화로운 농촌마을 주민들을 무차별 난사한 사건으로 이는 한국에서 가장 짧은 시간동안 다수를 죽인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①‘경찰공무원법’이 대대적으로 수정되어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규정하는 단일법으로 개정되었다. ②1983년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여 경찰채용시험에 고졸이상이라는 학력제한 규정을 두었으며 종합적성검사를 추가하였다. ③ 신임순경 교육을 8주에서 24주로 연장되었다.



▲우범곤▲



▲ 관련기사 ▲

## 2. 한국의 연쇄살인범 계보

### (1). 정두영사건의 정두영

1999년 6월~2000년 4월까지 동거녀와의 결혼자금인 10억을 모으기 위해 부산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집을 털고 9명의 사람들을 둔기를 사용하여 연쇄 살해한 정두영사건.

#### -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망하여 생계가 곤란해진 상태에서 넷째아이를 출산한 그의 어머니는 아이에게 충분한 관심과 영양을 주지 못했고 그의 어머니는 재혼으로 그를 고아원에 맡겼다.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는 충격으로 정체성에 대해 심각한 불안과 혼란을 느껴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일삼아 고아원내에서도 통제 불능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렸다. 또한 또래에 비해 작은 체구 때문에 놀림을 받아 ‘폭력’뿐만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폭력적으로 변해갔다.

#### - 청소년기와 그 후

심각한 정서장애와 행동장애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 범법, 거짓말, 대인관계실패 등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연결되는 품행장애의 모습을 보이며 고아원의 통제를 뿌리치고 거리로 뛰쳐나와 범죄를 생계수단으로 삼아 소년원을 제집처럼 들락거려 범죄자 집단과 범죄 문화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출소 후 그는 친형의 소개로 만난 동거녀와 그 어머니에게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돈에 대한 병적인 집착으로 이어져 이러한 연쇄살인이 발생된 것이다.



## (2). 고창 연쇄살인사건의 김해선

2000년 10월~12월까지 3명의 어린 소녀와 남매를 강간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무덤위에 십자가 모양으로 놓힌 채 방치하며 심지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도려내기까지 한 고창 연쇄 살인사건

### -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는 별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어린 김해선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했으며 심지어는 발가벗긴 채 벨트로 온몸을 때리고 집밖으로 내쫓았다. 순종적인 어머니는 어린 김해선의 보호막 역할을 해주지 못했다. 그래서 학대로 인한 정서장애와 성격 장애 등이 대인관계 장애와 품행장애로 이어져 학교에서나 동네에서 외톨이, 말썽쟁이가 되어 주위 사람들 기억 속에는 가까이 하기 싫은 ‘무섭고 이상한 아이’로 남아 있었다. 또한 아무런 이유없이 강아지 등 약한 동물들에게 심한 가학 행위를 자주하였다.

### - 청소년기와 그 후

중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가출한 뒤로 교육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으며 멋대로 살았다. 물론 본인의 문제가 가장 컸지만 바람직한 역할 모델이 되어줄 어른을 만나지 못해 음주벽이나 빗나간 성 탐닉 역시 이시기에 습득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동거한 여자에게 강간죄로 고소당하고 다음 여인에게는 배신을 당하며 전과7범으로 성장하였다. 그 후 그는 귀향하여 시골에서의 무료함과 이를 달래기 위한 술이 불러일으킨 욕구는 어린 시절 그가 약한 동물에게 했던 행위처럼 ‘아무런 이유없이, 재미로’ 사람을 괴롭히고 살해하게 되었다.



## (3). 수원여성연쇄납치살인사건의 김정훈, 허재필

2002년 4월 카드 빚 때문에 승용차를 택시처럼 위장한 뒤 몰고 다니며 사흘간 20대 여성 5명을 납치하여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사건이다.

### - 김정훈

전과7범이지만 이는 대부분 군복무 시절에 발생했고 제대 후 사회에서는 특수강도 1건만 있어 어설픈 아마추어 전과자이며 부모도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교직과 피아노 학원운영 등을 하던,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정상적인 중산층’이었지만 학업 등에서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반항 심리를 키워 군 입대 후 여러번 영창신세를 지며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기회를 잃어갔고, 제대 후에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강도짓을 하다가 검거되어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 - 허재필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가난 때문에 가출로 인한 모성 결핍과 애정 결핍 때문에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늘 친구도 없는 외톨이로 지냈으며 모든 일에 소극적으로 성장해서 욕구불만과 자기 부정, 세상에 대한 막연한 불만 등을 무분별한 소비와 유흥 등으로 달래었다.

성격이 완전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교류하면서 ‘부정적 상승효과’가 발생되어 주체할 수 없는 연쇄살인 강도의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 (4). 유영철 사건의 유영철

2003년 9월~2004년 7월까지 서울지역에서 부유층에 대한 불만과 이혼한 뒤에 느낀 여성에 대한 혐오증 때문에 21명의 부유층 노인과 여성들을 망치나 칼 등 각종 잔혹한 방법을 이용해 연쇄적으로 살인한 사건이다.

## — 어린시절

서울에서 노동일을 하는 부모 사이에 3남 1녀 중 삼남으로 태어났다. 유영철의 아버지는 월남전 참전 군인으로 귀국 후 술, 도박, 여자에 빠져 가산을 탕진했고 가정폭력을 일삼았다. 유영철이 7살 때 이혼한 아버지는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과 재혼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 연인숙을 전전하며 근근히 살았다. 초등학교 진학 후 친모와 같이 살았지만 애정결핍에 따른 욕구 불만으로 인해 주위의 관심을 끌어보려는 심리에서 말썽을 부리고 거짓말을 일삼았다.

## - 청소년기와 그 후

초, 중학 교 재학 중 결석이 거의 없었으며, 성적은 중간정도였지만 미술과 체육과목은 뛰어났고 교우관계도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행동을 통제해주고 바람직한 역할 모델을 제시해주는 모범적인 어른이 주위에 없어 청소년기에 습득해야 할 덕성과 태도 형성이 되지 못했다. 서울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뒤 공업고 2학년을 다니던 중 절도사건으로 소년원에 수감돼 학업을 중단하고 떠돌이 생활을 했다. 유씨는 21살 때인 1991년 마사지 안마사인 황 모씨와 결혼, 11살 된 아들이 있었으나 이후 14차례 특수절도 및 성폭력 등으로 형사입건 되는 등 11년을 교도소에서 보내 사회와 철저히 격리됐다. 2000년 3월 특수절도 등으로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 2002년 5월쯤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일방적으로 이혼 당했으며 이후 말을 하지 않고 대인기피 현상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 VI. 결론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한 후 언론은 너도나도 사건 보도에 열을 올렸다. 그만큼 사회는 충격과 공포 속에 휩싸여 있었고, 이는 사회의 가치관까지도 흔들리게 했다. 차츰 고개를 들던 ‘사형제 폐지 운동’은 사건 이후 주춤해지고 ‘사형제’에 대한 찬성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회의 가치관까지 움직이게 되는 연쇄살인 범죄는 더 이상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며 다른 이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연쇄살인 범죄는 그 단어의 뜻처럼 계속 반복되어 언젠가 또다시 우리사회를 공포와 충격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이 연쇄살인 범죄는 단순한 범죄와 달리 모든 사람들, 특히 모든 여성들이 대상이 되며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발생하게 될 지는 예측할 수 없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이 한 사람의 비정상적인 행동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죽어야만 한다면 이 또한 비극적인 범죄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지만 사건은 또 다시 발생할 것이다. 지금도 누군가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을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범행이 발생되면 즉각적인 초동수사가 이루어지고 과학적인 기법을 통한 범죄에 대한 분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나 모든 범죄가 그렇듯이, 범행발생 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연쇄살인은 하나의 요인, 원인으로 모두 설명할 수 없고 범죄자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인 다양한 요인들이 뒤얹히고 중복되어야 일어난다. 즉 연쇄살인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요인이 갖추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요인들을 한두 개 가졌다고 해서 살인 범죄자로 단정할 수 없다.

중요한 점은 비록 연쇄살인 범죄 예방에 묘방은 없을지라도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협력하여 교육적·사회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여 사회기강을 확립하고 사회를 정화함으로써 범죄가 애당초 뿌리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듯 범죄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 VII. 참고문헌&자료

### ▷ 연쇄살인의 의의

- 최영인 저, 『범죄프로파일이론과 연쇄살인의 프로파일링』, 백산출판사, 2005
- 해럴드 셰터 저, 『연쇄살인범 파일』, 휴먼앤북스, 2007

### ▷ 연쇄살인 발생 요인

- 최영인 저, 『범죄생물학이론과 범죄심리학이론』, 백산출판사, 2005
- 해럴드 셰터 저, 『연쇄살인범 파일』, 휴먼앤북스, 2007
- 옥필훈 저, 『범죄학검 형사정책』, 진영사, 2009
- 안성조 저, 『사이코패스. 1』, 경인문화사, 2009
- 이수정 저, 『범죄심리학』, 북카페, 2010

### ▷ 대 책

- 레슬러, 로버트 K 저, 『살인자들과의 인터뷰』, 바다출판사, 2004
- 박재윤 저, 『연쇄살인사건 대책』, 국민대학교, 2004
- 야후 블로그, <http://kr.blog.yahoo.com/psljjh/4066>
- 네이버 카페 '전대형사 3조', <http://cafe.naver.com.crimianllaw3>

### ▷ 세계와 국내의 연쇄살인범 계보

- 국가기록원, <http://blog.daum.net/yeonsili/12340799> (우순경사건)
- 네이버 블로그 '들꽃사랑', <http://blog.naver.com/tiger6107?Redirect=Log&logNo=140025354110> (테디번드)
- 암살의 고향 홈페이지 <http://yaonquick.egloos.com/2314302> (요크셔 살인마)
- 암살의 고향 홈페이지 <http://yaonquick.egloos.com/2268683> (언덕위의 살인마)
- 네이버 카페 '추리로 답을 찾는 사람들'  
[http://cafe.naver.com/every74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6709](http://cafe.naver.com/every74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6709) (BTK)
- 매거진 LIFE 홈페이지  
<http://www.life.com/image/first/in-gallery/31802/the-many-faces-of-serial-killers> (기타 사진들의 출처)
- 표창원 저, 『한국의 연쇄살인 사건』, 랜덤하우스 중앙, 2005 (한국의 연쇄살인범 계보)